

현안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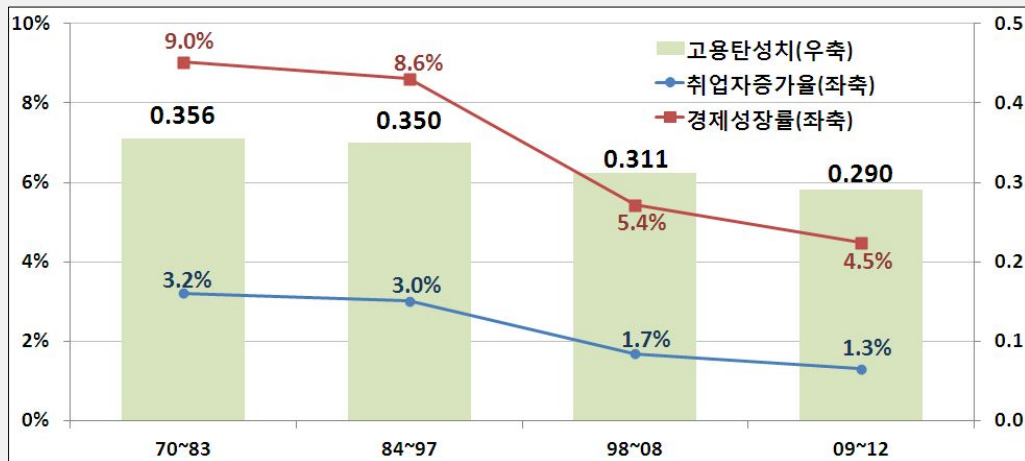
| 경제 구조 혁신이 고용 창출의 근원

< 요약 >

고용 창출력의 변화

❖ 한국 경제의 고용 탄성치, 외환위기/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락
0.350 → 0.311 → 0.290
 외환위기 이전 (‘84~’97) 금융위기 이전 (‘98~’08) 금융위기 이후 (‘09~’12)

<기간별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IMF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2012년 취업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IMF 전망치(WEO, 2012. 4.)를 사용
 2) 취업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해당 기간의 연율 환산 증가율임.

고용 창출력 하락의 원인

- ❖ 자본집약화에 따른 노동절약적 경제 시스템화
- ❖ 글로벌 분업화 확산에 의한 일자리 해외 유출
- ❖ 대외 충격에 따른 고용 손실의 복원력 미약
- ❖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 감소
- ❖ 고용 경직성에 따른 노동 이동성 미약

시 사 점

- 첫째,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 둘째,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여 고용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셋째,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 넷째, 대외 의존성을 개선하여 경제 충격에 의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
- 다섯째, 고용 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여 노동 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1. 고용 창출력의 변화

○ (개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 하락 정도를 살펴 보기 위하여 기간별 고용탄성치를 비교함

- (연구 목적) 본 보고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엽적인 고용 시장 문제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적 고용 창출력 하락 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는 데에 있음

- 최근 고용 시장에 대한 주된 연구는 이슈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청년층 실업자, 단시간 취업자, 비정규직 등 지엽적인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짐
- 그러나 고용 시장 내 지엽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경제의 전반적 고용 창출력 약화'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 부정적 영향이 경제 구조 내 취약 부문에서 먼저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됨
- 이에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들을 진단해 봄으로써 향후 장기적으로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분석 기간) 한국 고용 시장에 취업자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도를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함

- 1970년 이후 고용시장에 취업자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도는 1984년(취업자 증가율, -0.5%), 1998년(-6.0%), 2003년(-0.1%), 2009년(-0.3%)임
- 이 중 2003년의 취업자 감소 정도는 다른 시점에 비해 미약하여 분석 구분점에서 제외함
- 이에 따라 분석 기간은 **1970~83년, 1984~97년, 1998~2008년, 2009~12년**의 네 기간으로 구분함

- (고용 창출력 대리 변수) 고용 창출력을 나타내는 대리 변수로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를 사용함

- 이외 고용 창출력을 나타내는 대리 변수로 부가가치(실질GDP) 금액당 신규취업자, 자연실업률, 취업유발계수 등 다양한 측정치를 들 수 있으나,
- 본 보고서에서는 장기 추세 변화를 보기에 적합한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를 사용함**

○ (고용 창출력 변화)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는 외환위기 직후 급락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속됨

- 1970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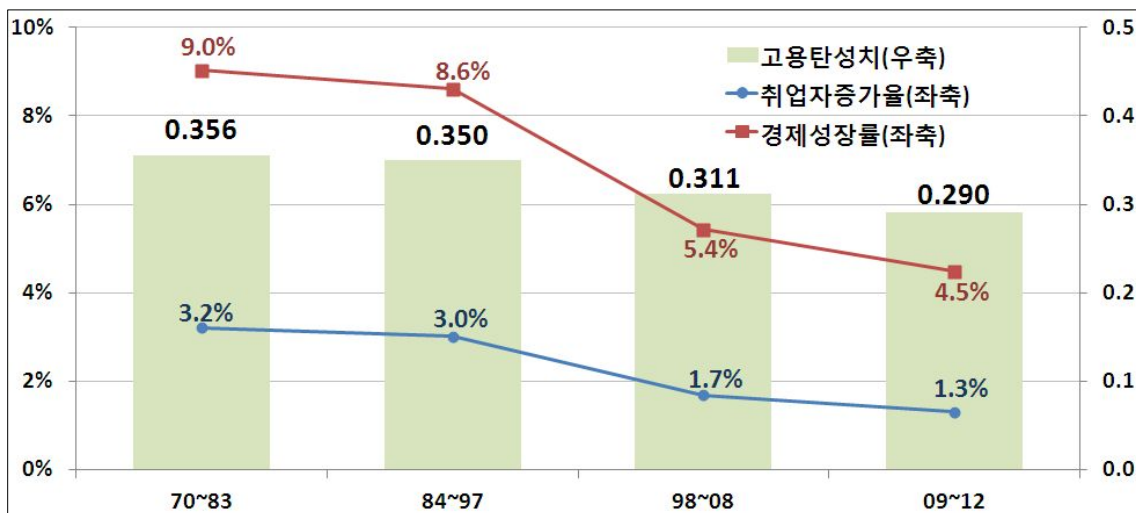
- 한국의 기간별 고용탄성치를 보면 1970~83년 기간중 연평균 0.356(즉, 경제성장률 1%p 당 취업자수가 0.356%p 증가하는 의미)에서 1984~97년 기간에 0.350으로 소폭 하락하는 데에 그침

- 그러나 외환위기를 전후로 고용탄성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남

-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전 기간(1998~2008년)의 고용탄성치는 0.311¹⁾로 직전 기간의 0.350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2009~12년)의 고용탄성치는 0.290으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임

※ 2012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은 IMF(2012년 4월) 전망치를 사용함

<기간별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IMF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2012년 취업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IMF 전망치(WEO 2012. 4.)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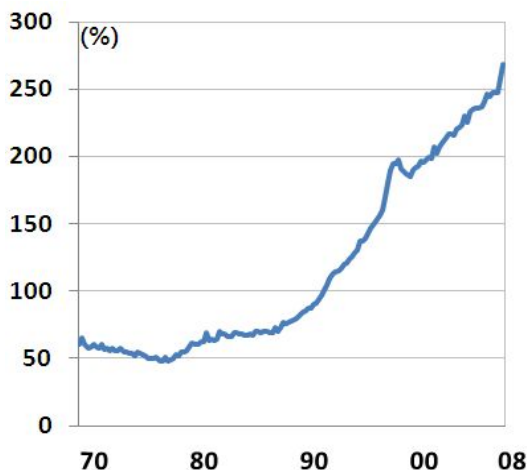
2) 취업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해당 기간의 연율 환산 증가율임.

1) 참고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전 기간을 2003년을 기준으로 다시 구분하였을 경우 '98~'02년의 고용탄성치는 0.352이며 '03~'08년은 0.300으로 후반기가 더 낮아지는 모습임.

2. 고용 창출력 하락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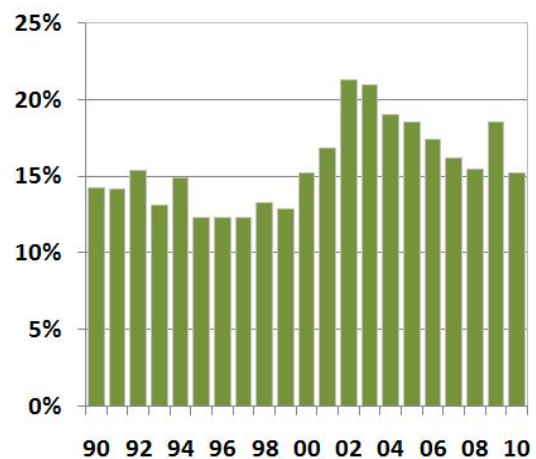
- 고용창출력 하락의 원인으로는 ① 자본집약화에 따른 노동절약적 경제 시스템화, ② 글로벌 분업화 확산에 의한 일자리 해외 유출, ③ 대외 충격에 따른 고용손실의 복원력 미약, ④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 감소, ⑤ 고용 경직성에 따른 노동 이동성 미약 등을 들 수 있음
- (자본집약화에 따른 노동절약적 경제시스템화) 경제 발전 과정상 자본 축적이 노동 투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노동 절약적 경제 구조로 이행
 - 경제 발전 경로로서 자본 투입의 증가로 노동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자본 집약적 구조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고용 창출력이 축소
 - 90년대 이후 자본스톡/노동투입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는 물론 금융위기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
 - 특히 최근 생산 능력 확충투자보다 공정자동화 등의 합리화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노동절약적 경제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외환위기 이후 합리화투자/총설비투자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중

<자본스톡/노동투입 비율>



자료: 안정화(2009)²⁾

<합리화투자/설비투자 비중>



자료: 한국산업은행.

2) 안정화(2009), “자본 축적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 자본스톡의 추계와 분석(1970-2008)”, 사회경제평론 제32호 (2009년 상반기) pp.229-268.

○ (글로벌 분업화 확산에 의한 일자리 해외 유출)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행, 국제 분업 구조의 확산 등으로 경제의 수입유발효과가 높아져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해외 유출 정도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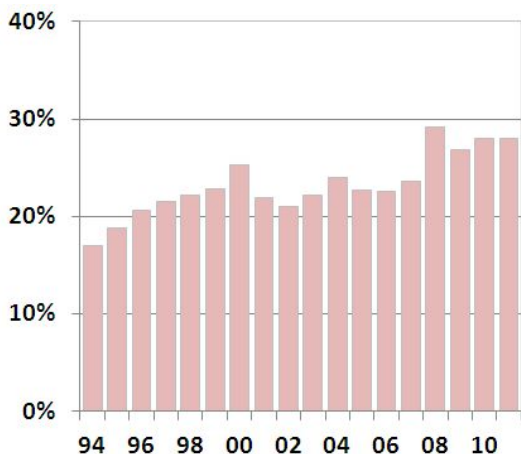
- 국제 분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

- FTA와 같은 무역협정의 확대 등으로 자유 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품 생산구조의 복잡 다기화, 원자재의 상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제 분업화(specialization)가 빠르게 진행
- 한국의 부품소재·자본재수입/GDP 비율은 1994년 17.1%에서 2011년 28.0%로 증가 추세

- 특히 높은 수출 및 제조업 의존도로 말미암아 경제 전반의 수입유발효과가 높아져 부가가치 및 일자리의 해외 유출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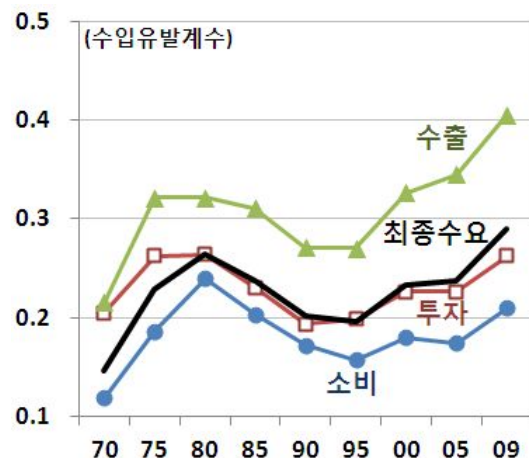
-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수출 부문의 경우 수입유발계수는 1995년 최종수요한 단위당 0.271에서 2009년 0.406으로 급등, 이에 따라 경제 전체의 수입유발계수도 같은 기간 0.196에서 0.290으로 상승
- 이는 대략적으로 말하면 최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중간재 수입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부품소재·자본재 수입/GDP 비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PMSD 및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최종수요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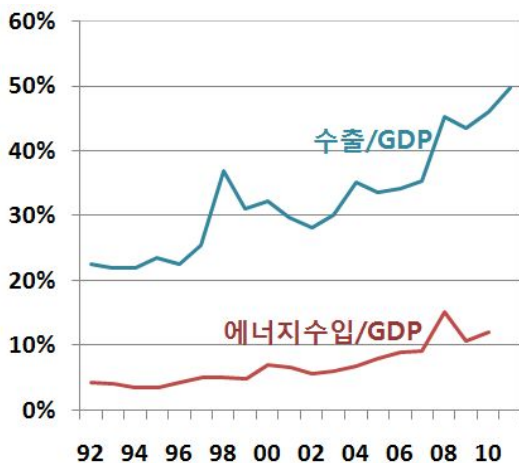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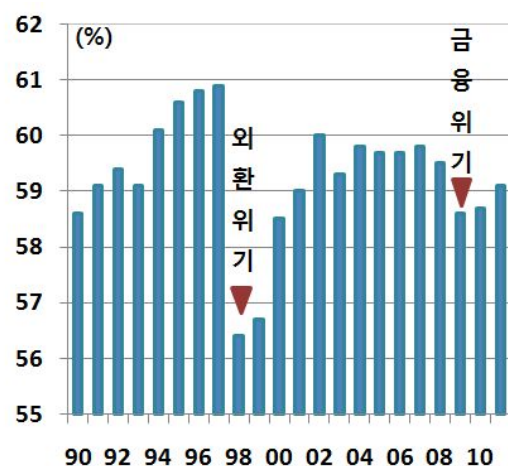
주: 7부문으로 통합하여 계산.

- (대외 충격에 따른 고용손실의 복원력 미약)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지는 한국 경제의 특성으로 대외 충격에 의한 영구적 고용 상실 효과가 존재
 -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성으로 인해 해외에서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큰 경제 교란을 경험
 -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 및 에너지수입의존도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불안, 에너지 가격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
 - 경제의 수출의존도(수출/GDP)는 1990년 24.1%에서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49.7%로 급증, 에너지수입의존도(에너지수입/GDP)도 1992년 4.3%에서 2010년 12.1%로 증가
 - 경제적 교란 강도가 과도할 경우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고용 시장으로 파급되어 영구적 손실(permanent loss)을 유발
 -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경제 충격으로 고용 시장에 영구적 손실을 가져오는 이력현상(Hysteresis)³⁾이 발견
 - 고용률은 90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59.8%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59.2%로 낮아졌으며 금융위기 이후 58.9%로 다시 하락

<수출의존도 및 에너지수입의존도>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자료: 통계청.

3) 관련 실증 연구로는 Arestis and Mariscal(2000), Papell et al(2000), Roed(2002), Fève et al(2003), 김웅(2009), Brandolini et al(2006), Gustavsson and Osterholm(2007), Blanchard(2003), Stockhammer and Sturn(2008) 등이 있음.

○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 감소)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 비중은 하락

-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은 급격하게 하락

- 과거에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실질취업유발계수* 값이 컸으나 1995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 값이 더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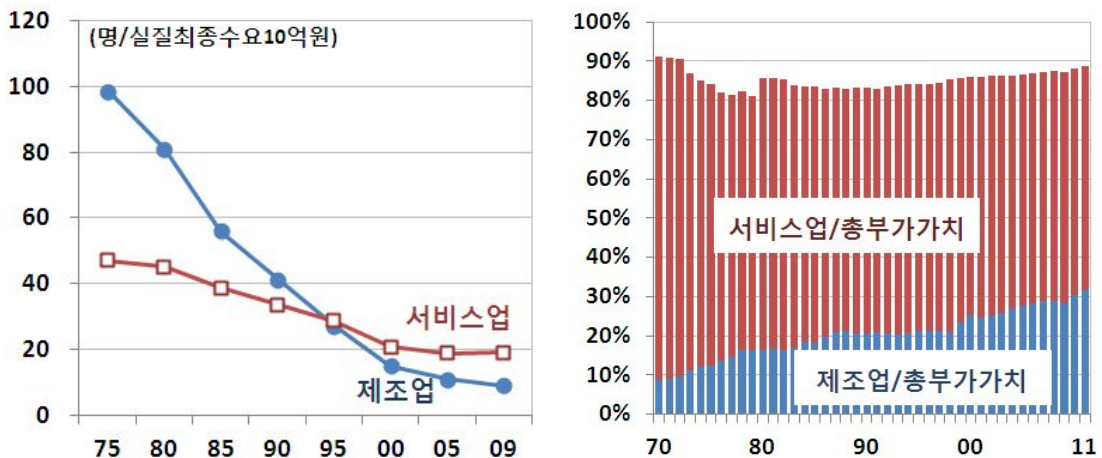
- 이에 따라 2009년 현재 제조업의 실질취업유발계수는 8.9명/최종수요 10억원으로 서비스업의 19.0명/최종수요 10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실질취업유발계수는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며, 기존 취업유발계수가 명목 최종수요 기준이기 때문에 시계열상의 상대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연구원 자체에서 개념을 정의한 것임에 유의

- 그러나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

- 서비스업부가가치/총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 82.6%에서 1990년 62.4%에 이어 2011년 57.2%로 감소

<실질 제조/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 <실질 제조/총부가 및 서비스업/총부가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취업유발계수의 행렬 계산은 7부문 통합 과정을 통해 도출된 명목최종수요 당 취업유발계수를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최종수요 기준으로 전환.

○ (고용 경직성에 따른 노동 이동성 미약) 다양한 요인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직장·산업간 이직 등이 용이하지 않아 고용 흡수력의 불필요한 누수(漏水)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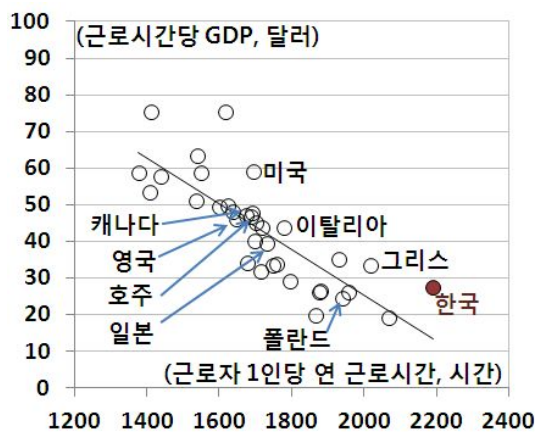
- 한국 경제의 근로시간은 OECD 최대지만 시간당 생산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평가는 한국 근로 행태에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시간의 낭비가 많다는 지적
- 즉,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가정 하에서 시간당 생산성을 높일 경우 그만큼의 고용을 확대할 여지가 높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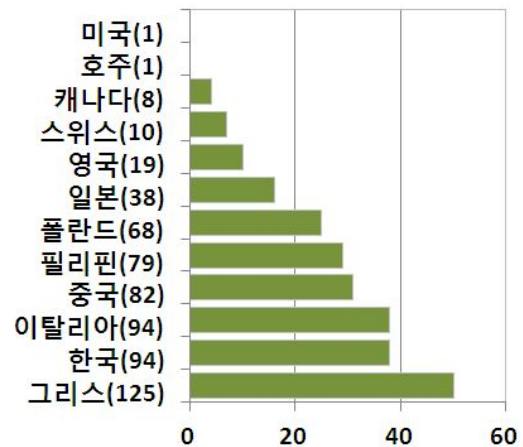
- 그러나 다양한 원인⁴⁾에 의한 노동 시장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고용흡수력의 확충이 곤란

- WEF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고용경직성지수는 38포인트로 고용유연성이 좋은 정도를 순서로 나열하였을 경우 세계 94위에 불과

<OECD 주요국 근로시간·생산성(2010년)> <WEF의 주요국 고용경직성지수(2009년)>



자료: OECD.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주: 국가 옆의 괄호는 순위이며, 지수가 높을수록 고용경직성이 높다는 의미

4) 이러한 원인으로는 재취업 교육 시스템의 부실, 내부자-외부자 모형[Insider-Outsider Model, Blanchard and Summers(1986)], 낙인효과[Stigma Effect, Ball(1999), Phelps(2008)] 등을 들 수 있음.

3. 시사점

-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약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국내 투자 환경 개선, ② 부품·소재 국산화율 제고, ③ 서비스 산업의 발전 촉진, ④ 높은 대외 의존성 개선, ⑤ 고용 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의 중장기 대응 방안이 필요

첫째,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회복을 촉진해야 할 것임
-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 인프라, 노사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의미하는 ‘팩키지형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둘째,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여 고용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자유무역의 확대, 국제 분업화의 확산 등으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율을 제고하여 부가가치가 국내에 잔류되는 정도를 높이고 고용의 해외 유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임
-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와 관련된 원천 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야 함

셋째,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 최근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저부가 업종이나 공공·사회 부문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어 서비스업의 추세적인 고용 흡수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제조업의 고성장 효과가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업중 비즈니스서비스업, 물류업 등과 같은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시급히 육성하여 성장 이동의 통로(conduit)를 확장해야 할 것임

넷째, 높은 대외 의존성을 개선하여 경제 충격에 의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

-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해외에서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민감한 경기 변동으로 이어져 고용의 장기적인 손실을 유발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중화학 공업의 에너지 의존도 개선, 녹색산업과 같은 쉐에너지 산업 비중(굴뚝 없는 산업)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단기간 내 수출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외 충격 발생시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지속 추진, 글로벌 히트 상품의 개발, FTA의 확산 등의 노력이 요구됨

다섯째, 고용 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여 노동 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산업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구인·구직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고 등이 요구됨
- 특히 노동시장의 단절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과 여성 경력 단절 근로자의 재진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 경제적 노동력의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요구됨

<참고 문헌>

- 김 응(2009),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제397호.
- 안정화(2009), "자본 축적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 자본스톡의 추계와 분석(1970-2008)", *사회경제평론* 제32호, pp.229-268.
- Ball, L.(1999), "Aggregate Demand and Long-Run Unemploy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ume 1999, Number 2, pp.189-251.
- Blanchard, O. J.(2003), "Monetary Policy and Unemployment", Remarks at Monetary Policy and the Labor Market, a conference held in November 2002 in honor of James Tobin.
- Blanchard, O. J. and L. H. Summers(1986),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croeconomics Annual* 1986, Volume 1, pp.15-90.
- Brandolini, A., P. Cipollone and E. Viviano(2006), "Does the ILO Definition Capture All Unemploy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ume 4, Issue 1, pp.153-179.
- Feve, P., P. Y. Henin and P. Jolivaldt (2003), "Testing for Hysteresis : Unemployment Persistence and Wage Adjustment", *Empirical Economics*, Volume 28, Number 3, pp.535-552.
- Gustavsson, M. and P. Osterholm(2007), "Does Unemployment Hysteresis Equal Employment Hysteresis?", *Economic Record*, Volume 83, Issue 261, pp.159-173.
-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 Growth Resuming, Dangers Remain April 2012*.
- Papell, D. H., C. J. Murray and H. Ghiblawi(2000), "The Structure of

Unemploy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ume 82, Number 2, pp.209-315.

- Phelps, E. S.(2008), "U. S. Monetary Policy and the Prospective Structural Slump", 7th Annual BIS Conference on Monetary Policy.
- Philip, A. and I. B. F. Mariscal(2000), "OECD Unemployment : Structural Breaks and Stationarity", *Applied Economics*, Volume 32, Issue 4, pp.399-403.
- Roed, K.(2002), "Unemployment Hysteresis and the Natural Rate of Vacancies", *Empirical Economics*, Volume 27, Number 4, pp.687-704.
- Stockhammer, E. and S. Storn(2008),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Unemployment Hysteresis", *Applied Economics*, Volume 44, Issue 21, pp.2743-2756.
- WEF(2011),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백다미 연구원 (dm100@hri.co.kr, 2072-6239)